

〈다윗의 이중생활〉
목장교재 목자용 지침서

7/22(주일) 설교 내용

사무엘상 27:1-12

1.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일을 그르쳤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. ‘많은 생각’과 ‘많은 기도’ 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지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.

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.
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앞세워 분석도 하고,
사람들의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.

물론, 그 자체가 의미 없거나 불필요한 행동들은 아닙니다.
하지만, 그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면
곤란할 것입니다.

그런 의미에서,
‘우리가 원하는 방향’ 이 반드시 ‘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’ 과
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에,
우리에게 필요한 것은, ‘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’입니다.

너무 많은 생각을 한 나머지, 일을 그르친 경험을
목원들과 나누어 주시고,
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,
‘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’ 임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2. ‘몸은 힘든데 은혜가 있는 쪽 vs 은혜는 없는데 몸은 편한 쪽’
우리는 이 두가지 중 어떤 쪽을 선택합니까? 오늘 말씀을 접하며 어떤
생각이 드는지 이야기해 보고, 또,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다짐하거나
결단한 것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.

몸은 힘든데 은혜가 있는 쪽 vs 은혜는 없는데 몸은 편한 쪽

목원들에게 이 두가지 상황중 어떤 쪽을 선택할지 물어보고,
진솔한 이야기들을 들어 주십시오.

어떤 면에서는 ‘몸이 편한 쪽’을 선택하는 솔직함이,
목장 나눔에서 더 큰 은혜를 던져 주기도 할 것입니다.

그런데 사실 2번 질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,
단지 ‘어떤 쪽을 선택하겠느냐?’ 가 아니라,
‘오늘 말씀을 통해 얻은 새로운 다짐이나 결단’ 에 대한 것입니다.

목원들에게,
오늘 말씀속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
깨달게 된 사실은 무엇인지, 또 그것을 통해 새롭게 다짐하거나
결단하게 된 것은 무엇인지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.

목장에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,
‘말씀을 통한 삶의 적용’ 이기 때문입니다.